

2023년 여성가족패널로 본 우리나라 여성의 삶¹⁾

조선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센터 부연구위원

들어가며

- 여성가족패널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구축하는 여성가족 분야 패널자료로, 우리나라 여성의 삶과 가족과정 및 가족생활, 가족관계와 가치관, 일자리 등의 변화를 추적하는 전국 규모의 종단자료임.
- 동 조사는 2007년 전국 9,068가구 내 만 19세부터 64세 여성 9,997명 표본을 시작으로 1차조사를 실시한 이래로 2007~2023년에 걸쳐 전체 1~9차 조사 웨이브를 구축 및 개방하였음.
- 2023년 패널사업으로 데이터 제공 및 유지·보수, 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 이용자 서비스 제공, 데이터워크숍 및 학술심포지엄 개최 등 성과확산과 관련된 행사를 추진함.
- 2023년 연구보고서에서는 기초연구 및 심층연구, 패널 개선과제 진단 및 후속 패널사업 기초연구 수행 등으로 본원 패널사업의 장기적 비전 제시와 지속성장을 모색함.
- 본 지에서는 「2023년 여성가족패널조사」가 제시한 다양한 분석결과 중 최근 우리나라 저출생·고령화 현황을 진단하는 데 필요한 여성의 가족 관련 경험과 인식,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 일·생활균형 인식과 관련된 기초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함.

1) 본 원고는 아래 연구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발췌 및 정리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조선미·김은정·이동선·한진영·이진숙·임연규·손창균·김근태·계봉오(2023). 2023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3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소개

- 저출생·고령화 추세에서 여성가족 분야는 지난 20여 년간 가장 급격한 변화가 나타난 영역으로, 최근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이 강조되는 정책환경에서 여성가족 분야 연구 수행에 적합한 자료의 구축은 정책연구 성패의 결정적인 사항이 되고 있음.
- 여성가족패널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구축하는 국내 유일의 여성·가족 분야 패널자료로, 우리나라 여성의 삶과 가족구조, 가족과정 및 가족생활, 가족관계와 가치관, 일자리 등의 변화를 추적하는 전국 규모의 종단자료이며, 현재까지 2007~2023년에 걸쳐 전체 1~9차 조사 웨이브가 구축되었음.
-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주요 사업내용은 패널자료 생산과 패널 유지·관리 관련 과업 수행, 데이터 제공 및 이용자 서비스 업무 추진, 매년 연구보고서를 발간, 여성가족패널 홍보 및 성과확산을 위한 행사 개최 등임.
- 2023년 여성가족패널조사 9차조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가구정보는 주거상태, 가구소득, 가구소비, 자산과 부채 등을 조사함.
 - 개인정보는 결혼경험, 가사노동, 자녀양육, 건강 등을 조사함.
 - 일자리 정보는 일자리 현황과 함께 구직경험, 일만족도, 교육훈련, 차별사항 등을 조사함.
 - 부가조사로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생활 또는 여성 삶의 변화, 다양한 가족에 관한 수용도, 일·생활 균형(워라벨) 인식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음.
- 본 고에서는 「2023년 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 수행된 9차조사 웨이브의 기초분석 결과 중 우리나라 저출생·고령화와 관련된 정책수요 파악을 위해 미혼(비혼) 및 기혼여성의 가족 관련 경험과 인식,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 일·생활균형 인식 현황과 관련된 분석내용을 중점 검토하고자 함.

여성의 가족구성 및 가족생활에 대한 인식과 경험

- 미혼(비혼)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 의향을 분석하였음(<표 1>). 분석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미혼여성의 결혼 의향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대 이하와 30대에서 각각 44.3%, 50.0%의 응답자가 결혼 의향이 있었고 결혼 의향이 없거나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응답이 40대는 80% 이상, 50대 이상은 전체의 90% 이상으로 나타남.
 - 특히 20~30대 미혼(비혼) 청년여성 중 결혼의향을 밝힌 응답자는 과반수 이하에 그쳤음.

<표 1> 미혼(비혼)여성의 결혼 의향

(단위: %, 천명(%))

구분	있음	없음	생각해 본 적 없다	계
20대 이하	44.3	14.3	41.4	2,279(100.0)
30대	50.0	24.3	25.7	1,777(100.0)
40대	15.3	57.4	27.3	368(100.0)
50대	0.9	80.3	18.8	287(100.0)
60대 이상	-	65.9	34.1	242(100.0)
소계	1,958(39.5)	1,359(27.4)	1,636(33.0)	4,954(100.0)
계	1,958(39.5)	1,359(27.4)	1,636(33.0)	4,954(100.0)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3). 여성가족패널조사 9차조사 원자료 분석(가중치 부여)

- 부부관계에서 자녀 교육 문제, 취업, 직장, 투자 및 재산 관리, 여가 활동 등에 대한 부부 간 의사결정 방식을 살펴보았음. 분석결과, 부부간 의사결정에 있어 부부가 공동결정하거나, 여성/남성이 주로 담당하는 분야에 대한 차이가 나타남.

- 본인(아내)가 주로 결정하는 것은 생활비 관리(71.6%), 본인의 취업 여부(48.8%), 본인의 직장 이동(42.0%)이었음.
- 남편이 주로 결정하는 분야는 남편의 취업 여부(58.7%), 남편의 직장 이동(52.1%)이었음.
- 부부가 함께 결정하는 분야는 가족 내 여가 활동(69.8%), 투자 및 재산관리(66.2%), 자녀 교육 문제(32.1%)로 나타남.

<표 2> 기혼여성의 부부간 의사결정

(단위: %, 천명(%))

구분	본인이 주로	남편이 주로	부부가 함께	다른 가족과 함께	해당없음	계
자녀 교육 문제	19.6	1.1	32.1	2.3	45.0	13,240(100.0)
본인의 취업 여부	48.8	2.2	20.1	0.5	28.4	13,240(100.0)
남편의 취업 여부	4.7	58.7	20.8	0.5	15.4	13,240(100.0)
본인의 직장 이동	42.0	3.2	19.5	0.6	34.7	13,240(100.0)
남편의 직장 이동	2.5	52.1	23.2	0.5	21.8	13,240(100.0)
투자 및 재산 관리	17.7	15.0	66.2	1.1	-	13,240(100.0)
생활비 관리	71.6	3.9	23.8	0.7	-	13,240(100.0)
가족 내 여가활동	19.8	4.1	69.8	6.3	-	13,240(100.0)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3). 여성가족패널조사 9차조사 원자료 분석(가중치 부여)

-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배우자와의 가사 및 돌봄노동에 대한 분담 만족도를 살펴보았음. 분석결과, 가사·돌봄노동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를 만족(매우 만족한다+대체로 만족한다)의 비율로 살펴본 결과, 30대 이하 66.0%, 40대 39.1%, 50대 34.0%, 60대 이상 32.3%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만족도가 높았고, 특히 30대 이하에서 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은 45.7%, 고졸 35.4%, 중졸 이하 33.2%로 교육 수준이 낮아질수록 만족도가 낮아졌음.

- 돌봄노동 분담에 만족(매우 만족한다+대체로 만족한다)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30대 이하 62.5%로, 40대 43.4%, 30대 38.7%, 60대 이상 29.9%로 연령이 낮을수록 만족률이 높았고, 30대의 만족률이 가장 높았음. 교육 수준에서는 전문대졸 이상 50.0%, 고졸 41.9%, 중졸 이하 27.8%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분담 만족률이 높았음.

<표 3> 기혼여성의 부부간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

(단위: %, 천명(%))

구분		가사노동					계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보통이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연령	30대 이하	6.0	60.0	26.8	6.6	0.7	1,908(100.0)
	40대	3.3	35.8	37.7	15.7	7.4	3,086(100.0)
	50대	2.9	31.1	39.2	18.9	8.0	3,084(100.0)
	60대 이상	2.3	30.0	42.2	17.6	7.9	5,161(100.0)
	계	423(3.2)	4,757(35.9)	5,058(38.2)	2,105(15.9)	898(6.8)	13,240(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8	31.4	41.1	17.5	8.3	2,860(100.0)
	고졸	3.6	31.8	36.8	19.0	8.8	5,028(100.0)
	전문대졸 이상	3.6	42.1	38.0	12.1	4.1	5,339(100.0)
	계	423(3.2)	4,746(35.9)	5,054(38.2)	2,105(15.9)	898(6.8)	13,226(100.0)
계		423(3.2)	4,757(35.9)	5,058(38.2)	2,105(15.9)	898(6.8)	13,240(100.0)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3). 여성가족패널조사 9차조사 원자료 분석(가중치 부여)

<표 4> 기혼여성의 부부간 돌봄노동 분담 만족도

(단위: %, 천명(%))

구분		가사노동					계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보통이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연령	30대 이하	4.2	58.3	29.6	6.5	1.4	1,416(100.0)
	40대	3.2	40.2	37.2	14.2	5.2	1,531(100.0)
	50대	1.2	37.5	43.0	13.1	5.2	754(100.0)
	60대 이상	1.4	28.5	49.2	14.2	6.6	1,376(100.0)
	계	138(2.7)	2,115(41.7)	1,991(39.2)	603(11.9)	229(4.5)	5,076(100.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3	25.5	50.7	16.5	5.0	775(100.0)
	고졸	3.3	38.6	37.8	12.8	7.4	1,443(100.0)
	전문대졸 이상	2.5	47.5	36.9	10.2	2.9	2,852(100.0)
	계	138(2.7)	2,108(41.6)	1,991(39.3)	603(11.9)	229(4.5)	5,069(100.0)
계		138(2.7)	2,115(41.7)	1,991(39.2)	603(11.9)	229(4.5)	5,076(100.0)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3). 여성가족패널조사 9차조사 원자료 분석(가중치 부여)

주: 돌봄이 필요한 자녀나 부모님, 아픈 가구원이 없는 경우 결측처리함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

- 9차조사 부가조사에서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도를 살펴보았음. 다양한 결혼과 가족생활 모습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우리사회가 어느 정도로 수용하고 있는지의 인식 측정)의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음.
- 다양한 결혼 모습에 대해 우리사회 수용도(대체로 수용하고 있음+전적으로 수용하고 있음)가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재혼'과 '국제결혼(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각각 77.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자발적 비혼(성인 나이에 결혼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미혼(비혼)으로 사는 것)' 72.4%, '이혼' 70.3%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비혼동거(결혼 의향이 없는 남녀가 동거하는 것)'와 '혼인미신고(결혼식을 올린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는 각각 47.3%, 48.8%로 수용도를 낮았음.
- 따라서 이혼, 재혼, 국제결혼과 같은 혼인제도에 기반한 파트너십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비혼동거, 혼인미신고와 같은 혼인제도에 기반하지 않은 남녀관계 또는 가족구성 방식에 대한 수용도는 낮음.

<표 5> 다양한 결혼 모습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단위: %, 천명(%))

구분	전혀 수용하고 있지 않음	별로 수용하고 있지 않음	대체로 수용하고 있음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계
결혼 의향이 없는 남녀가 동거하는 것	10.6	42.1	40.6	6.7	22,083(100.0)
결혼식을 올린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	9.5	41.6	41.5	7.3	22,083(100.0)
이혼하는 것	2.7	27.0	56.9	13.4	22,083(100.0)
재혼하는 것	1.7	20.4	63.8	14.1	22,083(100.0)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	2.3	19.9	63.1	14.8	22,083(100.0)
성인 나이에 결혼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미혼(비혼)으로 사는 것	3.4	24.3	60.4	12.0	22,083(100.0)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3). 여성가족패널조사 9차조사 원자료 분석(가중치 부여)

- 자녀양육 및 가족구성 방식, 부부생활 등 다양한 가족 모습에 대한 우리사회 수용도를 살펴본 결과, 가장 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상황은 '졸혼부부(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부부가 별거하는 것)'가 56.0%였고, '딩크족(결혼했어도 자발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는 것)' 55.6%, '한부모가족(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쪽 부모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 47.5%, '펫펍족(결혼 또는 출산·입양으로 가족을 이루는 대신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선택하는 것)' 46.5%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가장 사회적 수용도가 낮은 상황은 '청소년부모(미성년 나이에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는 것)'가 22.0%이었고, '자발적 비혼입양(미혼(비혼) 1인 가구가 혼자서 아이를 입양하는 것)' 26.3%, '비혼부모(남녀가 법적 부부가 되지 않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27.2%, '자발적 비혼출산(미혼(비혼) 1인 가구가 보조생식기술(기증된 난자·정자에 의한 인공수정, 대리모 출산 등)을 사용하여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28.8% 순으로 모두 20%대에 그쳤음.

- 종합하면, 출산과 자녀양육 조건에 있어서는 기존 가족제도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즉, 자녀를 낳지 않거나 비동거 부부와 같은 등 다양한 가족생활을 인정하되, 만약 자녀를 낳고 양육한다면 부모가 성년 나이이거나 또는 법적 혼인관계를 전제로 해야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남.

<표 6> 다양한 가족 모습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

(단위: %, 천명(%))

구분	전혀 수용하고 있지 않음	별로 수용하고 있지 않음	대체로 수용하고 있음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계
남녀가 법적 부부가 되지 않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20.5	52.2	24.4	2.8	22,083(100.0)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쪽 부모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	11.3	41.2	40.9	6.6	22,083(100.0)
미혼(비혼) 1인 가구가 보조생식기술(기증된 난자·정자에 의한 인공수정, 대리모 출산 등)을 사용하여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29.2	42.0	25.6	3.2	22,083(100.0)
미혼(비혼) 1인 가구가 혼자서 아이를 입양하는 것	30.9	42.8	23.7	2.6	22,083(100.0)
미성년 나이에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는 것	35.6	42.4	18.7	3.3	22,083(100.0)
결혼했어도 자발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는 것	10.9	33.6	49.9	5.7	22,083(100.0)
법적으로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부부가 별거하는 것(졸혼 등)	8.9	35.2	50.3	5.7	22,083(100.0)
결혼 또는 출산·입양으로 가족을 이루는 대신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선택하는 것	15.5	38.1	39.7	6.8	22,083(100.0)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3). 여성가족패널조사 9차조사 원자료 분석(가중치 부여)

일·생활 균형 인식

- 응답자에게 지난 1년 동안 평균적인 일상생활을 일, 가정생활, 여가생활로 나누어 100%로 배분했을 때 실제 응답자가 들인 시간 및 에너지 비중과 응답자가 희망하였던 시간 및 에너지 비중을 살펴보았음.
-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지난 1년 동안 평균적으로 일 36.91%, 가정생활 41.19%, 여가생활 21.89%를 배분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응답자의 희망 배분 방식을 살펴보면 일은 35.71%로 실제 배분보다 1.20%p 낮았으며, 가정생활은 35.16%로 실제 배분보다 6.03%p 더 줄이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음.

- 일, 가정생활, 여가생활 배분에 대한 실제 비중의 경우,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인 경우, 임금근로자의 경우 다른 집단보다 일의 비중이 높았고, 가정생활 및 여가생활의 비중은 낮았음. 반대로 중장년층과 기혼여성(유배우, 별거/이혼/사별), 무급가족종사자는 상대적으로 가정생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일, 가정생활, 여가생활 배분에 대한 희망 비중의 경우, 거의 대부분 집단에서 일과 가정생활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여가생활의 비중을 늘리고자 하였음. 이는 30~40대 여성 또는 기혼여성(유배우)과 같은 가족돌봄 책임이 있는 여성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남.

<표 7> 일, 가정생활, 여가생활의 비중

(단위: 평균 %, 천 명(평균 %))

구분		가사노동			희망 비중		
		일	가정생활	여가생활	일	가정생활	여가생활
연령	20대 이하	50.09	25.11	24.80	47.69	22.84	29.48
	30대	45.59	34.68	19.73	45.29	28.54	26.16
	40대	37.41	44.17	18.42	37.02	36.05	26.93
	50대	40.77	39.92	19.31	38.34	34.53	27.13
	60세 이상	26.93	48.10	24.98	25.89	41.66	32.44
혼인 상태	미혼	51.38	24.43	24.19	48.29	21.98	29.73
	유배우	31.97	46.70	21.33	31.29	39.63	29.08
	별거/이혼/사별	35.31	43.79	20.90	34.75	36.71	28.54
취업 여부	임금근로자	58.09	25.43	16.48	51.39	24.04	24.57
	사업주 및 자영업자	57.77	26.24	15.99	49.49	25.64	24.87
	18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자	51.48	30.76	17.76	43.99	29.46	26.54
	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	50.79	32.06	17.16	40.11	32.29	27.60
	특수형태근로근로자	54.83	28.34	16.82	49.51	25.72	24.77
	비취업자	9.86	61.12	29.03	16.36	48.78	34.86
계		36.91 (22,082)	41.19 (22,082)	21.89 (22,082)	35.71 (22,082)	35.16 (22,082)	29.13 (22,082)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3). 여성가족패널조사 9차조사 원자료 분석(가중치 부여)

정책적 시사점

-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여성의 삶과 가족변화를 조망함으로써 여성가족 분야의 정책 수립과 평가에 필요한 기초연구의 수행과 정책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20~30대 청년 미혼(비혼)여성 중 약 과반수 정도만 결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기혼여성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대체로 가사 및 돌봄노동의 부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음.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법적 혼인제도 내에서 파트너십의 다양성에 대한 상대적인 수용도가 높았고, 출산과 자녀 양육 영역에서는 기존 가족제도를 기반으로 한 출산 및 자녀양육에 대해 수용도가 더 높게 나타났음.
 - 일·생활 균형의 경우 일, 가정생활, 여가생활의 배분에 있어 여성들은 지금보다 가정생활을 크게 줄이고 여가생활을 늘리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음.
- 본 고의 기초분석 결과는 우리사회의 저출생·고령화 현황을 파악하고 변화하는 가족 전망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여성의 경제활동과 일·생활 균형 현황을 파악하고, 가족구성과 가족 및 친밀관계의 변화과정을 추적조사함으로써 우리사회의 가족변화 양상을 토대로 가족정책 지원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참고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3). 여성가족패널조사 9차조사 원자료.